

“5·18 40주년 극우보수단체 금남로 점령 막아라”

16~17일 4000명 집회·문화제 신고

오월단체·광주시민들 분노

벌금 부과 외 방법 없어 저지 미지수

40주년을 맞은 올해 5·18민주화운동 주요 행사인 광주 5·18 여파로 모두 취소된 상황에서 이른바 극우·보수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서 5월 단체와 광주시민이 분노하고 있다.

광주시는 집회를 강행할 경우 행정명령으로 집회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외엔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보수단체의 집단 행동을 막아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20일 광주시와 광주 동부경찰 등에 따르면 자유연대와 터라이트 등 이른바 극우·보수단체들이 지난 16일과 17일 각각 5월 16일과 17일에 5·18민주광장과 전일빌딩, 금남공원 4거리, 금남공원 맞은편 인도 등 4곳에서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조서 공개 요구 집회와 문화제’를 열겠다고 광주동부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

이들은 5월 16일에는 1000명, 17일에는 3000명 등 총 4000명이 참가하는 집회와 문화제 등을 열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5월에도 금남로와 전남대학교 주변에서 같은 내용의 집회를 열고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이 올해 집회를 열기로 한 곳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수많은 광주시민이 계엄군의 총칼에 목숨을 잃은 역사적 장소로, 광주시민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섭 광주시장도 이날 ‘자유연대, 광주 대중집회와 시가행진 즉각 취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코로나19사태를 적용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집회 참가자에 대해 개인별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5·18 4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임에도,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5월 단체들은 “코로나19 감염우려에도 5·18정신을 폄하하려는 극우·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 계획을 용납할 수 없다”며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광주시가 행정명령으로 집회 금지를 한 것은 마땅하게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만약 집회가 일정대로 진행 된다면 광주시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홍식 5·18구속부상자회장은 “특히나 코로나19로 국가 위기상황이라 당연히 집회를 해서는 안된다”면서 “집회의 명분 없이 광주시민과 오월을 매도하고, 감염병 확산의 우려까지 있는 극우 보수의 대규모 집회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위원회는 지난 7일 제9차 행사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국민적 위기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5·18 전야제 등 40주년 기념행사를 대부분 취소하거나 축소 또는 연기·대체하기로 결정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총선의 민의는 국난 극복에 다 함께 힘을 모으자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이번 총선 의미 국난 극복 힘 모으자는 뜻”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4·15 총선 결과와 관련해 “이번 총선의 의미는 국난 극복에 다 함께 힘을 모으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당면한 과제에 대해 “첫째도, 둘째도 국난 극복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도 살려야 다음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가져온 인명 피해와 경제·사회적 피해는 3차 세계대전이라 불려도 될 만큼 막심하고 혹독하다”며 “우리는 이 전쟁의 최전선에 있다. 국난 극복에 전폭적으로 힘을 모아주시는 국민의 뜻을 되새기며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 또한 경제 위기 상황에 따라 추가로 내놓

을 수 있는 각종 대책 등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정부와 함께 여당도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모든 역량을 국난 극복에 집중해 달라”며 “야당도 지혜와 역량으로 경쟁하면서 국난 극복에 함께 협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세계에 희망이 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가장 신속하고 가장 모범적으로 바이러스 전쟁에서 승리를 이룰 것”이라며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서 한 것처럼 연대와 협력으로 함께 힘을 모은다면 경제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며 가장 빨리 위기 극복에 성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며 “과감한 경기 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5·18 기념일 ‘지방 공휴일’ 되나

광주시의회 내일 조례안 처리 원포인트 임시회

市산하 공무원만 쉬어...형평성 논란

광주시의회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원포인트’ 처리한다. 하지만 조례안대로라면 공무원만 쉬 수 있고 시민들은 쉬기가 어려워 형평성 논란도 우려되고 있다.

2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22일 정무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5·18 기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 조례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린다.

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간담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올해 40주년 기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고 4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지는 의미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례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해 5·18 기념일은 처음으로 지방 공휴일이 된다.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정 기념일 중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제주 4·3 항쟁 기념일이 지방 공휴일로 지정된 유일한 사례다. 앞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올해 3월 회기에서 휴무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자 의견 수렴 절차를 더 거치기로 하고 심의를 보류했다.

휴무 대상은 광주시와 산하 공공기관·사업소,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다. 민간 기업은 노사 간 협의로 휴무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라고 모두 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체 휴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없겠지만,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5·18 4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지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용섭 시장도 최근 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로 기념식을 제외하고 대부분 기념행사가 취소되고, 기념 행사위원회도 온라인으로 출범할 예정이어서 너무 안타깝다. 그렇다고 뜻깊은 5·18 40주년을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게 보낼 수 없다”며 조례안 통과를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동영 정계은퇴...“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갈 것”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민생당 정동영 의원이 20일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며 정계 은퇴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의 성원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4년 전 이맘때부터 다당제의 꿈, 한국 정치의 새로운 길을 만들고 싶었다”며 “하지만 힘과 능력의 부족으로 좌초했다.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어 “저는 ‘빛의 자’다. 무한한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여기까지 왔다”며 “그 빛을 갖고자 마지막 봉사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큰 사랑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4선 정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전북 전주광역에 출마해 32.0%를 득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66.6%)에 34.6%포인트 차로 패했다. MBC 기자 출신인 정 의원은 정계 입문 후 첫 선거였던 1996년 15대 총선 때 전주에서 전국 최다 득표율로 당선된 데 이어 16대 총선에서 재선 고지에 올랐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2007년 17대 대선에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이명박 후보에 패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22년 연속 (1999 ~ 2020)
가정용보일러 브랜드 파워 1위

창간68주년
광주일보

www.krb.co.kr

거꾸로 NEW 콘덴싱

AST 콘덴싱

친환경 정부보조금

20만원 지원

귀뚜라미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 시

거꾸로 NEW 콘덴싱 가스보일러

특수 하이핀 연관의 저탄소 열교환기

-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실현
- 저녹스 국내 기준 1등급의 친환경 보일러
- 빠른 온수 출탕과 풍부한 온수 사용 가능
- 컴팩트한 사이즈와 경량화된 무게
- 지진 감지기 내장, 가스 누출탐지기 내장

AST 콘덴싱 가스보일러

판형 전열핀 구조의 스테인레스 열교환기

-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실현
- 저녹스 국내 기준 1등급의 친환경 보일러
- 온도 변화없는 안정적 온수 사용
- 1℃ 단위의 맞춤 온도가 가능
- 지진 감지기 내장, 가스 누출탐지기 내장

제품 문의 : 1588-9000

지원금 지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시/구청 환경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기간: ~ 지자체 예산 소진 시까지(지자체별 상이)